

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복원과 명예회복, 그리고 그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광주시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는 정부입니다. 또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그 개혁은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는 1993년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 제13주년을 앞두고 이제 막 출범한 문민정부의 YS가 발표한 대통령 대국민특별담화의 머리부분이다. 문민정부로서는 첫 번째 맞는 5·18기념일을 ‘닷새’나 앞두고 ‘특별’히 준비하여 발표한 담화였다. 5·18에 대한 공식명칭을 ‘광주민주화운동’이라 하고, 문민정부를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한 것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공개롭게도 그 담화의 초안을 내가 정리했는데, 담화발표를 전후하여 무척이

광주는 아프다

나 שלה였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이 담화를 시작으로 하여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5·18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 제정, 망월동 묘역의 민주성지화, 기념공원 조성, 기념탑 건립, 상무대 부지의 시민공원화, 사망자와 행렬자에 대한 추가신고 접수, 지병수배의 공식해제 및 해직자 복직 등의 조치가 나하게 된다. 그러나 치유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다. 그것이 올바른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진실의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이른바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재판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밝혀지고, 가해자였던 전두환·노태우 등이 단죄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응시를 구하는 사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정의의 실현이 없는 불안한 치유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거기다 집단적 통회나 배상이 아니라 재심과 무죄를 전제로 하는 개별 보상은 완전한 치유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국가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 뒤에 나타나는 정신장애(트라우마)를 겪게 마련인데, 이를 위한 트라우마센터가 문을 연 것은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2012년 10월의 일이었다. 치

유가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외형의 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다.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최근 광주 시민 3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5.8%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5월이 되면 5·18에 대한 생각이나 그림이 떠오른다고 했고, 43.2%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생각하면 분노, 슬픔, 죄의식 등 매우 독특하고 강한 정서를 느낀다고 답했다. 예컨대 전두환의 육사사열 소식이 전해진 날에는 분노와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증상이 더 심하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후유장애에 사망자 400여명 중에는 자살자가 46명이나 되고, 광주민주화운동에 참가했던 이들의 자살비율은 10.4%나 된다. 5·18관련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4000여명 중에 광주에 거주하는 사람 2200여명 가운데는 기초생활보조자가 48%나 되고,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70%에 달한다고 한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외상후장애와 사회적 소외, 경제적 빈곤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는 아프다. 너무나 아프다. 1997년에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국가차원의 추모식이 거행되어오고 있다. 해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이 참석하는 행사도 정착되는가 싶더니, 이명박정부 때는 대통령이 취임 첫해를 제외하고는 내리 네 번을 불참했다. 2010년 30주년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경기민요인 ‘방아타령이 연주될 뻔한 일’이 있었고 올 해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합창은 왜도 제창은 안되는’ 기념식으로 끝났다. 더 나아가, 광주시민으로 하여금 아프다 못해 가슴을 치게 만드는 것은 종합편성TV 채널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이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00여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계림라였다”(TV조선). “북한군 50여명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장갑차를 몰았다”(채널A)는 방송을 여과없이 내보낸 것이다. 또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그 해 5월의 회생자를 ‘흥어’로 조롱하여 광주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는 잔인하게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처를 해집고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파괴되는 이런 방법들 속에서 치유는 어떻게 가능하며, 그 영혼들이 언제나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이번 방송은 계산되고 의도된 역사왜곡이요, 국본분열 음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통합과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망망히 광주시민은 물론 범국민적 응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료칼럼



김형원 내과원장·광주전남 개발내과의사회장

지구의 모든 동식물은 태어나서 자라고 병들고 늙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이 자연의 법칙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 터. 나이가 들면서 주름과 흰머리가 생기고, 눈도 침침해진다. 비가 오는 날은 추시는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 노화의 징조다. 뱃살상 ‘노인’과 노인이 아닌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만 65세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노인의 기준을 만 70세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50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야 할 때

타당하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연령대는 다름 아닌 50대다. 40대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자신 있던 이들도 50대가 되면 갑작스런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에 놀란다. 50대에 접어들면 각종 만성질환 발병이 늘고, 면역력 감소로 인해 감염질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50대는 40대에 비해 만성질환자가 급증한다. 40대가 평균 1.7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면, 50대는 이보다 많은 2.4개의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뇨병은 40대에 6.6%에 불과하던 수치가 50대에 접어들면서 13.8%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40대 초반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위염으로 약을 먹던 남성이 50대에 접어들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이 발생해 하루에 2~3가지 약을 먹는 것은 익숙한 모습이다. 만성질환과 함께 증가하는 질환이 면역력 감소로 인해 각종 바이리어나 세균의 침입

을 받는 감염질환이다. 주위에서 감기, 독감, 폐렴 등으로 고생하는 50대 이후의 환자들이 많이 보게 된다. 그 중에서도 폐렴 및 폐렴구균성 질환은 50대의 새로운 적이라 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각 기관의 면역력이 떨어짐에 따라 외부 균에 약해져서 폐렴이나 폐렴구균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더구나 만성질환자는 정선인보다 면역력이 더욱 낮아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그러나 치료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으로 인해 쉽지 않을 때가 많다. 발생률이 높은 폐렴도 심어 일의 입원 치료는 기본이고, 폐렴구균으로 인한 패혈증이나 뇌수막염은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50대든, 만성질환을 가진 50대든 폐렴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강조된다. 50대 이후 감염질환, 특히 폐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뭘까? 우선 적절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손을 자주 깨끗이 씻고 주위환경을 청결히 유지하는 등 개인위생에 힘쓴다. 둘째, 백신 접종을 통해 폐렴구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야 한다. 성인과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에 고개를 갇웃거릴 수도 있지만 폐렴 및 폐렴구균성 질환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 1회 접종으로 높은 면역 기억 효과를 볼 수 있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특히 만성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폐렴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우에 더욱 권장된다. 50대를 일컬어 공자는 ‘지천명’, 즉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나이이라 했다. 하지만 이는 평균 수명이 40~50세에 불과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평균 수명 80세를 넘었고, 100세 시대를 내다보는 요즘, 50대는 하늘의 뜻을 알기 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50세에 관가들한다는 것을 명심해 질병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社說

5·18 재단, 현안 제쳐놓고 중국 연수가다니

5·18 기념재단 이사진이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5월6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데 대해 적절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시도와 일부 방송의 ‘5·18 북한군 배후설’ 및 온라인상의 역사 왜곡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연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이사진 등 17명이 5월6일 일정으로 중국에서 열리는 ‘5·18 재단 일원 아시아기념시설 현장 워크숍’을 위해 지난 24일 출국했다고 한다. 이번 연수에는 이사진 15명 중 13명과 감사 2명, 직원 2명이 참가해 연길·화둥·백두산·용정·하얼빈 등지를 방문하며, 재단 예산 2500만 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이번 중국 일정은 대부분 유적지 탐사와 자체 워크숍으로 구성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 및 민주화·인권 신장을 표방하는 재단 취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

다. 5·18 기념재단은 연수 세부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유성을 연수가 포함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5·18 재단 측은 내년도 기념재단 설립 20주년을 앞두고 사업 방향·비전 및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 결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정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18 왜곡에 대한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기에 민주화나 인권 현안이 시급한 현상도 아닌 중국 동북지역을 방문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다. 매년 20억 원이 넘는 5·18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하느라 광주시 역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느라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념재단 측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며,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 광주시 역시 적절한 여부를 따져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술 취해 집단난동 부린 의사들 제 정신인가

대표적인 사회지도층인 의사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어섰다. 일부 의사들이 음주운전에 이어 마약류 불법취급, 보험사기 가담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온 터에 이번에는 술에 취해 집단 자부렸다니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광주 서부경찰에 입건된 박모씨 등 의사 4명은 심야에 만취상태에서 차로에 서있다 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자 차랑에 다가간 뒤 문을 발로 차고, 20여 분간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고 한다. 이로 인해 30분 가까이 운행이 지연돼 늦은 밤 귀가중이던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의사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들이 차에 부딪혔으니 보험 처리를 해달라며 소란까지 피웠다니 ‘막가파 의사들이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들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 의사들의 부도덕과 타락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병약하고 위

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생명을 구해 준경을 받아왔던 의사들이 근래 들어 불법과 탈선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특정 약품 권리를 제멋대로 해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조직적 인 보험사기에 주도적으로 나서 사법처리되는 시기에 까지 이르렀다. 이처럼 의사들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터진 이번 시내버스 집단 행패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병든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사들이 시정잡배와 같은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건 사회적 ‘잡’으로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겠지만, 의사회회는 무거운 징계는 물론 소양교육이라도 실시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짓을 한 의사들을 처벌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다른 탈선을 막을 것이다.

기고



고성혁 나주시 부시장·시인

힐링(healing)이 대세다. 우리말로 치유다. 그만큼 세상이 어지러운가 보다. 이 혼란스럽고 각박한 일상에 벗어나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것은 삶에 있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삶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힐링의 긴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렇다면 치유의 핵심은 무엇일까? 필자는 ‘마음 다스리기’에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많은 말들이 기대 서 있다. ‘사람’이라는 흔하니 흔한 말이, ‘겸손이 가장 큰 용기’라는 필자의 개성철학도 마음을 향해 시냇물처럼 흐른다.

산골 집짓기

그뿐이라, 화해와 용서에도 마음의 뒷이 깃 들어있다. 따라서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포괄적 주장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으로 믿는다. 장자(莊子)라는 책에 공자의 말씀으로 심재(心齋)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마음 굶김’이라는 뜻이다. 마음을 굶긴다는 표현은 또 얼마나 시적인가! 공자는 심재 하라고 가르친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귀 대신 마음으로 듣고 몸은 앉아 있으나 마음이 초다나지 않고, 우리가 얻은 상사적이고 일상적인 앓을 비우고 참된 앓을 얻기 위해 힘쓰라고 한다. 심재는 이타적 삶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심재는 겸손과 낮은 함참 지나 현재의 ‘나’를 깨뜨리는 일이다. 기원전 500년대의 인물이 이처럼 장쾌한 죽비를 내리쳤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산골에 작은 집을 지으려 한다. 퇴직을 생각하면서 아내와 상의 끝에 정적과 침묵이 가득한 산자락을 찾아 작은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전라남도의 산 갈기를 오래도록 헤매고 다녔다. 아, 100군데는 족히 될 것으로 기억한다. 드디어 한 군데를 정하고 터를 마련했다. 처음, 집을 지을 계획을 세우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

행복은 무엇인가

첫째, 산자락과 접한 곳이다. 산의 냄새와 기운이 밥 짓는 저녁연기처럼 내리앉는 풍경을 만끽하기 위함이다. 둘째, 지금의 집에서 30분 거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 ‘4도3촌(4郡3村)’으로서 주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위,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이다. 셋째,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비용 모두를 합쳐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집은 15평을 벗어나지 않는다. 사람인자라, 시골생활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산골에 들어가 병아리를 치고 표고버섯을 키울 것이다. 산비탈을 누비며 머뭇대와 취나물을 캐 것이다. 텃밭을 만들고 내가 먹을 상추와 배추, 무를 심고 고추를 똑똑, 딱 딱을 것이다. 더러는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에 뛰어들어 피라미도 잡고, 묵은 친구가 찾아오는 저녁이면 앞산 그림자에 기대 소주도 한 잔 기울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어렵다 해도 내 일생의 오랜 연인, 마누라가 있으니, 그와 함께 등과 등을 기대고 저녁노을의 환희를 볼 수 있잖은가. 아, 벌써부터 겨울 산자락에 내리는 눈발이 보고 싶다.

시골생활은 자연친화적 삶을 통해 겸손한

몸과 낮은 마음을 좇 것이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내다보면 내주는 대지의 엄격함으로 겸손해지고, 하늘을 휘도는 나엽과 비와 바람으로 성정 또한 고요해 질 것이다. 아니, 꼭 그리 되었으면 좋겠다. 행복은 무엇인가,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의 지향점은 어디인가. 물질과 오히려 반비례하는 행복의 느낌이야말로 삶의 방식을 시사하는 그 무엇이다. 그 무엇이 목표든 수단이든 마음이 행복을 여는 출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하여 나는 산골 집짓기를 통해 거칠지만 행복한 삶을 꿈꾼다. 60을 넘어 새로운 삶을 꿈꾼다. 산과 하늘과 강에 떠도는 고독과 침묵으로부터 낮은 행복을 배우고, 그들의 수결함으로부터 겸손을 배우 마음을 한껏 배우고 싶다. 지루한 장마가 끝나는 7월,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산골 집짓기가 시작된다. 여러분은 스스로 집을 지어 보았는지? 혹은 15평의 초립단 주택을 두고 고개를 가로 저을지 모르지만 내게는 어머니의 산소와 함께, 내 손으로 짓는 내 생애 의미있는 두 번째 집짓기가 될 것이다. ▲정אים·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無等鼓

벤 버נק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 양적완화 정책의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달러화 가치가 뛰고 신흥국 시장에 선 주식, 채권, 통화 가치가 동시에 급락하는 ‘트리플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종합주가지수 1800이 깨지는 등 거센 후폭풍으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양적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란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뜻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해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제나 다른 자신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판단하에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부터 시작해 2014년 중반 정도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양적완화는 다른 나라의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해 달러 통화량이 늘면 달러 가치 하락에 따라 미국 상품 수출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반대로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환시장 불안 당시와 비교해 외채 규모는 작고, 외환보유액은 늘어 경쟁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제나 다른 자신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

수출경쟁력은 높아지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반대로 원화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환시장 불안 당시와 비교해 외채 규모는 작고, 외환보유액은 늘어 경쟁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제나 다른 자신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것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

▲정אים·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아파트는 공동 공간...소음·흡연 자제해야

많은 사람들이 다세대 공동주택인 아파트 생활을 한다.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달리 각양 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지켜야 할 에티켓도 참 많다.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을 뛰지 않게 각별히 주의를 줘야 하며, 밤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운

동, 약기 연주, 콘서트 TV 시청 등은 피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당연 답배일 것이다. 여기저기 불편사항이 끊이지 않을 것들 보니 말이다. 일전에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끄지 않은 채 담배꽂이를 창밖으로 던져 지나가는 어린이의 옷 속으로 풍조가 들

어가 화상을 입었고 주차된 차위에 떨어져 차량에 손상이 가는 일이 발생했다. 만약 이런 피해가 우리 아이가 당하고 내 차에 떨어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는가. 또 베란다나 복도에서 피우는 담배 냄새로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나 유택에 간접 흡연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 베란다도 내 복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내만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날씨가 좋은 날 간혹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는 주부들이 있다. 최근 4층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던 주부가 떨어져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혼 4년차인 그 주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주의를 살피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해 갔으면 좋겠다.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鏞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대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 마케팅국 227-96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 지 인 설 2200-536 프로젝트 팀 2200-555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부 2200-616	지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